

일본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 충남도 내 역사 및 문화 관련 기관의 발전과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등 일본 고대한일관계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를 위해 추진한 공무여행 결과보고임.

I 국외여행 개요

- 출장기간 : 2024년 5월 29일 ~ 6월 1일 / 3박 4일
- 방 문 지 : 일본 후쿠오카(야마구치현, 사가현)
 - 조선통신사 상륙지, 오우치 가문 유적지, 야메시 이와토야마 고분 등 방문
 - 가라츠·마쓰로 무령왕 네트워크 교류회 참석
 - 무령왕 탄생지(가라츠 가카라시마) 방문 및 탄생제 참가
 - 시모노세키 시립미술관, 규슈 국립박물관, 나고야성 박물관 등 교류 및 방문
- 출장자 및 업무내용

출장자(3명)	업무내용
김낙중(원장)	공무국외출장 기획·조정 등 업무 총괄
진재근(경영기획부장)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및 국내·외 협력 기관 협의 등
양수연(책임연구원)	방문 기관 및 단체 관련 자료 조사 및 사진촬영 등

- 여행 일정(요약)

기간	활동
2024년 5월 29일(수)	▶ 출국(공주-인천공항-후쿠오카 공항 도착) ▶ 시모노세키 관문해협→조선통신사상륙지→청일강화기념관→시립미술관
2024년 5월 30일(목)	▶ 오우치유적(大内館)→조에이지사원(常榮寺)+셋슈정원→루리코지(溜璃光寺) ▶ 아키요시다이(秋吉臺)→아키요시동굴(秋芳洞)
2024년 5월 31일(금)	▶ 규슈 국립박물관→이와토야마고분→가가미야마 전망대(鏡山展望台) ▶ 가라츠·마쓰로 무령왕 네트워크 교류회 참석
2024년 6월 1일(토)	▶ 가카라시마 오비야우라→무령왕 탄생제→나고야성 박물관→나고야성 ▶ 귀국(후쿠오카-인천공항-공주 도착)

○ 여행 세부일정

일자	시간	일정
5월 29일	04:20	고마센터 주차장 집결 후 인천공항 출발
	06:50~10:30	인천공항도착, 탑승수속 및 인천공항 출발(비행 약 1시간 소요)
	10:30~12:30	후쿠오카공항 도착, 시모노세키로 이동
	12:30~13:30	중식 후 집결
	13:30~13:50	관문해협 및 조선통신사상륙지 방문
	13:50~14:20	아카마신궁 및 청일강화기념관 방문
	14:20~16:00	초후정원(長府庭園) 전시회 개최 참가 및 시모노세키 시립미술관 방문
	16:00~18:00	야마구치 도착 / 호텔 체크인, 석식 및 휴식
5월 30일	08:30~09:00	호텔에서 오우치유적(大內館)으로 이동
	09:00~10:30	오우치유적(大內館) 방문
	10:30~11:20	조에이지사원(常榮寺) 및 셋슈정원 방문
	11:20~12:00	루리코지(溜璃光寺) 방문
	12:00~13:30	중식 후 집결, 아키요시다이(秋吉臺)로 이동
	13:30~14:00	아키요시다이(秋吉臺) 전망대 방문
	14:00~15:20	아키요시동굴(秋芳洞) 방문
	15:20~18:00	후쿠오카로 이동
	18:00~19:30	후쿠오카 도착 / 호텔 체크인, 석식 및 휴식
5월 31일	08:30~09:40	호텔에서 규슈 국립박물관으로 이동
	09:40~10:30	규슈 국립박물관 방문(한국어 해설)
	10:30~12:15	이와토야마고분 방문
	12:15~14:40	중식(무령왕을 생각하는 모임-일본단체 교류)
	14:40~17:00	가라쓰시로 이동
	17:00~18:00	가가미야마 전망대(鏡山展望台) 방문
	18:00~18:30	호텔 체크인
	18:30~19:10	가라츠-마쓰로 무령왕 네트워크 교류회 참석
6월 1일	08:00~09:20	호텔에서 나고야항으로 이동
	09:20~09:50	가카라시마 도착
	09:50~10:20	가카라시마 오비야우라(무령왕 탄생지) 방문
	10:20~11:30	무령왕 탄생제 참가
	11:30~14:00	공연 참석 및 중식
	14:00~15:40	나고야성 박물관 및 나고야성 방문
	15:40~18:10	후쿠오카 이동, 석식
	18:10~22:20	후쿠오카공항도착, 탑승수속 및 후쿠오카공항 출발(비행 약 1시간 소요)
	22:20~01:30	인천공항 도착 및 공주 고마센터 주차장 도착 / 해산

○ 여행 동선



Ⅱ 유적지별 활동내용

① 관문해협 및 조선통신사상륙지

- 관문해협의 주요내용 : 일본 혼슈(本州) 서쪽의 시모노세키(下關)와 모지(門司) 사이의 해협이다.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해협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통행이 어렵다.
- 조선통신사상륙지 주요내용 : 일본의 초청을 받아 방일한 조선통신사가 남긴 사적은 한일 양국 간의 기나긴 교류사에 선린우호(善隣友好)의 증거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의를 재인식하고자 기념비를 세웠다.

관문해협 노래비	조선통신사상륙지 기념비 앞 기념촬영
	

② 청일강화기념관

- 주요내용 : 청일강화기념관은 청일강화회의 때 사용된 비품과 기타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 전시하고 있는 기념관이다. 청일강화회의는 청일전쟁의 종결을 목적으로 1894년 3월 20일 시모노세키에서 열렸다. 청과 일본은 회의를 지속하여 4월 17일 청일강화조약(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



③ 초우정원(長府庭園) 전시회 개최 참가 및 시모노세키 시립미술관

- 초우정원의 주요내용 : 초우정원은 초후 모리번의 가로격이었던 니시운나가의 저택터로, 시립미술관의 옆에 자리한다. 현재 시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한국전통궁중자수 대전사회’의 개관을 위하여 이정숙명인의 개최식을 참석하였다.
- 시립미술관 주요내용 : 시립미술관은 초후마을에 위치하며, 시모노세키에서 1983년 개관하였고, 소장한 작품은 약 2,400여 점이다.



④ 오우치유적(大内館)

- 주요내용 : 오우치씨는 일본의 씨족 중 하나로, 중세 일본의 대영주였다. 오우치씨의 선조인 임성태자는 백제 성왕의 셋째 아들이라는 오랜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오우치 요시히로는 조선과의 독자적인 무역을 행하는 기록(조선왕조실록)이 150년 간에 걸쳐 200회가 넘게 남아있다. 대내관은 오우치의 정청이다.



⑤ 조에이지사원(常榮寺)과 셋슈정원

- 조에이지사원의 주요내용 : 이 사원은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의 중기경, 당시 묘키지(妙喜寺)라고 하는 절의 정원으로, 오우치(大内) 마사히로(政弘)가 화승 셋슈(雪舟)에게 명하여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곳의 석정은 일본식 정원이 자랑하는 고요한 우아함과 단순함의 극치를 담은 미학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 셋슈 : 종교인이자 예술가로, 선종 정원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⑥ 루리코지(溜璃光寺)

- 루리코지의 주요내용 : 고대 일본 씨족의 하나인 오우치씨의 전성기 문화를 전승하는 사원으로, 야마구치를 대표하는 명소이다. 25대손 오우치 요시히로가 현재의 장소에 고샤쿠지를 창건했다. 여러 번의 개칭 이후 지금의 루리코지라고 불린다. 경내에는 국보로 지정된 오층탑을 중심으로 고잔정원이 있다. 1442년에 세워진 오층탑은 현존하는 40기의 오층탑 중 10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높이는 31.2m이다.



⑦ 아키요시다이(秋吉臺)와 아키요시동굴(秋芳洞)

- 아키요시다이의 주요내용 : 아키요시다이는 1965년 국정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고생대의 산호초로 이루어졌으며, 해발고도 200~300m의 카르스트이다. 지표면에는 깔때기 모양의 돌리네와 석회암 기둥이 발달했다.
- 아키요시동굴의 주요내용 : 아키요시다이 고원의 지하에는 현재까지 453개의 석회동굴이 확인되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아키요시동굴이다. 이 동굴은 1926년 4월 30일 발견되었고, 총 길이 8.79km이며, 일본에서 4번째로 긴 동굴이다.



⑧ 규슈 국립박물관

- 주요내용 : 도쿄, 나라, 교토에 이어 4번째 국립박물관이며, 2005년 10월에 개관되었다. 4층 문화교류전시실에는 ‘바닷길 그리고 아시아로 통하는 길’ 이라는 테마로, 구석기부터 근대 말기에 이르는 일본 문화의 형성을 전시하고 있다. 국립박물관과 공주박물관은 자매결연이 되어있어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약간의 한국어 해설을 해주셨다.



⑨ 이와토야마고분

- 주요내용 : 후쿠오카현 야메시 소재 북부 규슈 최대 규모의 전방후원분으로, 분구의 전체 길이는 135m, 후원부 지름 70m, 전방분 폭 95m에 이른다. <축후국풍토기>에 이와이의 무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수의 석인상, 말 석상, 하니와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옆에는 출토된 유물이 있는 전시관이 조성되어 있다.



㉔ 가가미야마 전망대(鏡山展望台)

- 주요내용 : 가가미야마(해발 284m)는 일본 3대 비련 전설로 유명한 마쓰우라 사요히메가 오토모 사데히코와의 이별을 한탄하며 영건을 흔든 산이다. 전망대에 오르면, 일본 3대 송림 중 한 곳인 ‘니지노마쓰바라’가 보인다. 100만 그루의 소나무는 약 4.5km로, 17세기 초 방풍·방조림으로서 조성했다고 한다.



㉕ 가카라시마 오비야우라

- 주요내용 : 일본 사가현 가카라시마 섬에서는 백제 무령왕의 탄신제가 열린다. 『일본서기(권16 武烈紀 4年)』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가 장수왕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개로왕은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동생 곤지를 자신의 부인과 함께 일본에 보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가는 도중 임신한 왕비가 출산의 산기가 다가오자 곤지 일행은 가카라시마 섬에 배를 세우고, 오비야우라 동굴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 태어난 아기는 백제 25대 무령왕으로 전해진다.



12 무령왕 탄생제

○ 주요내용 : 2002년 이후 가카라시마에서는 매년 6월에 무령왕을 기념하는 무령왕 탄생제가 열린다. 공주에서는 30여 명 규모의 방문단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상호 방문의 교류를 20년간 이어갔다.

또한 2006년 공주시와 가라츠시가 함께 시민 모금으로 무령왕 기념비를 세웠으며, 이 기념비 앞에서 무령왕 탄생제를 지내고 있다.



13 나고야성과 나고야성 박물관

○ 주요내용 : 나고야성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위하여 그 전진기지로서 1591~1592년에 건설하였다. 완공 이후 이곳을 본영으로 삼아 조선 침략을 지휘하였다. 나고야성 박물관은 특별사적으로 지정된 나고야성을 보존, 정비하는 사업의 핵심시설이다. 과거의 역사 사실에 대한 반성을 통해 단절된 한일관계사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전시 등을 통하여 우호 및 교류의 추진 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Ⅲ 교류회 활동내용

① 규슈 국립박물관과의 교류

- 주요내용 : 규슈 국립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은 현재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 사전 연락을 취한 후 5월 31일 한국어 해설사와의 교류를 진행하였고, 약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약간의 한국어 해설을 해주셨다. 전시실 관람 전 해설사의 해설 덕분에 전시실 관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서로 기념품을 교환하였다.



② 무령왕을 생각하는 모임(일본단체)과의 교류

- 주요내용 : 5월 31일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후쿠오카현 야메시의 일본단체인 ‘무령왕을 생각하는 모임’과의 교류를 진행하였다.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와 200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일 교류회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교류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한일 문화교류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다.



③ 가라츠·마쓰로 무령왕 네트워크 교류회

○ 주요내용 : 5월 31일 저녁에는 6월 1일 무령왕 탄생제 참가 전 가라츠 가카라시마와의 교류를 진행하였다. 사가현 가라츠시 가카라시마는 일본서기에 의하여 무령왕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역민들이 가라츠시에서 마쓰로 백제 무령왕 네트워크를 창립하였다. 창립 이후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회의의 꾸준히 교류하면서 한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가라츠·마쓰로 무령왕 네트워크 교류회 모습



④ 나고야성 박물관과의 교류

○ 주요내용 : 6월 1일 오후 나고야성 박물관 관람 전 박물관측의 배려로, 나고야성 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해설 후 박물관장님과 인사 및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서로 기념품을 주고 받았다. 나고야성 박물관장님은 도자사 전공으로, 한일 문화교류 사업에 힘쓰고 있다.

나고야성 박물관과의 교류 모습



IV 보도자료

① 코토호신문 보도자료

三

6月6日

佐賀新聞

☁

🔍

👤



画像を拡大する

武寧王生誕地とされるオビヤ浦の洞窟を訪れた韓国・公州市の関係者ら＝唐津市鎮西町の加唐島

朝鮮・百濟第25代王の武寧王の生誕祭が1日、唐津市鎮西町の加唐島であった。日韓ゆかりの地から顕彰団体会員など約160人が参加。1500年を超える絆を確かめ、今後の末永い友好を誓い合った。

당진시 진서초 가당도 조선·백제 25대 무령왕의 탄생제가 1일 당진시 진서마을 가당도에서 열렸다. 한일 연고지에서 현창 단체 회원 등 약 160명이 참가하였다. 1500년이 넘는 인연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오랜 우호를 서로 맹세했다.

② 일본신문 보도자료



한일 1,500년간의 우호 다짐

가라츠시(唐津市) 가카라시마의 무령왕 탄신제에 160인 참가

한국의 백제 제25대 왕인 무령왕의 탄신제가 1일 당진시 진서정(鎭西町)의 가카라시마에서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관련 지역에서 현창 단체 회원 등 약 160명이 참가하였다. 1,500년이 넘는 인연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우호를 다짐하였다.

백제를 중흥시킨 무령왕은 백제왕의 부인이 일본으로 가던 도중 가카라시마의 오비야우라 동굴에서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서기의 기록과 전설이 한국에서 역사적 사실(史實)로 확인된 후 탄신제는 2002년에 시작되었다. 무령왕릉이 있는 한국의 공주시에서 약 40인, 주 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의 관계자 등이 내방하였다. 마츠로 백제 무령왕 국제 네트워크협의회(미야자키 회장) 회원과 현지의 동 협의회 부회장인 사카모토(73)씨를 비롯한 섬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탄신 기념비 앞에서 있었던 탄신제에서 사카모토 부회장과 박건찬 총영사(59) 등이 인사말을 통해 ‘양국의 친목을 도모하는 가교 역할을 다해온 만큼 앞으로도 이 위대한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갑시다’라고 했다.

환영식에서는 가카라시마 초 중학생 9인이 〈가카라(加唐) 소~란〉을 펼쳐보이는 등 교류를 증진하였다.

③ 세종의 소리 보도자료

(<https://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69527>)

일본 시모노세키-야마구치, 조선과 백제 만났다

☞ 송두범 | ☎ 승인 2024.06.05 10:07 | 💬 댓글 0

[송두범 칼럼] 일본에서 돌아본 무령왕 탄생지, 임성태자 가문 탐방기
조선통신사 첫발 내디딘 '시모노세키', 김종필총재 친필 등 교류 이어져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와 공주향토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제23회 무령왕탄생제에 참가하기 위해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사가현(佐賀縣) 가라츠시(唐津市) 북쪽 해상 무령왕탄생지인 가카라시마(加賀島)를 비롯하여 백제 성왕의 셋째 아들로 알려진 임성태자(琳聖太子)의 후손인 오우치(大内)가문, 임진왜란시 조선출병지인 나고야성(名護屋城) 등 역사문화자원을 답사했다. 공주와 관련이 많은 일본의 옛 도시를 돌아본 소회를 '세종의소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글을 썼다.



조선통신사상륙기념비

공주에서 새벽 4시20분 출발한 우리 일행은 일본 후쿠오카공항에 10시 30분 도착했다. 첫 방문지는 야마구치현(山口縣)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모노세키(下關)이다. 큐슈와 혼슈 사이를 가로지르는 폭 1.5km의 간몬해협에 접한 시모노세키는 예로부터 서부 일본 육해교통의 중심지로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이다.

1763년 말 공주 무릉동 출신 조선통신사 종사관 서기로 일본에 다녀온 퇴석 김인겸이 기술한 '일동장유가'에는 시모노세키(아카마가세키, 赤間關)를 이렇게 묘사했다.

‘예로부터 도내양이라 산도 낮고 물도 적어서 산수는 절승하고 여염도 즐비하다. 평지가 전혀 적어 포변의 대소인이 둘로 쌀아울러 서너 장씩 높게 하고 그 위에 집을 지어 접육연장하였구나. (중략) 절집이 광결하고 경치가 기절하여 죽백도 많거니와 그 중의 소철나무가 모양도 기이하고 이슬이 죽어갈 때 쇠뿔을 박아두면 도로 산다 하는구나.’

23회 무령왕탄생제 가라츠에서 개최

✎ 신용희 기자 | ☎ 입력 2024.06.06 21:26 | ☎ 수정 2024.06.06 21:31 | 💬 댓글 0



무령왕기념비를 보며 공주시민의 자부심 느껴

일본 사가현 가카라시마에서 제23회 무령왕탄생제가 현지에서 개최됐다. 가카라시마 실행위원회(위원장 사카모토 쇼이치로)와 가라츠-무령왕네트워크협의회(이하 가라츠무령왕네트워크, 회장 미야자키)가 주최하는 행사다.



제23회 무령왕탄생제에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김낙중 원장의 축사

이날 무령왕탄생제에는 가카라시마 실행위원회와 마츠로쿠다라무령왕네트워크 회원들을 비롯한 현지 지역민과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박건찬 총영사와 직원들, 가라츠시 부시장과 가라츠시의회 의장, 오사카부 하비키노시곤지국제네트워크, 가라츠시국제교류협회, 가카라시마소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섬 현지 주민과 한일 여러 단체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

공주에서는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국립공주박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제세계유산센터-관계자를 포함한 공주시민 34명이 함께 했다. 특히 이번 방문단에는 일본의 후지카즈오 고고학자가 참석하여 일본에서의 무령왕탄생제의 관심을 볼 수 있었다.

V **종합의견 및 기대효과**

① 종합의견

- 충남도 내 역사 및 문화 관련 기관의 발전과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충남역사문화와 관련이 깊은 국립공주박물관,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등의 관련 기관과 함께 국외공무연수를 실시하여 향후 백제 역사문화 발전 및 상생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 무령왕국제네트워크 등 일본 내 고대한일관계 및 역사문화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하여 향후 국내외 역사문화 교류 네트워크 기반 마련
 - 규슈 국립박물관 및 나고야성박물관 등의 교류 및 견학을 통하여 고대한일 관계와 관련된 자료 수집
 - 일본 내 무령왕과 관련된 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역사문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마련
- 한일관계 유적 및 조선통신사 관련 유적 방문을 통한 역사문화 인식 제고
 - 나고야성터 및 박물관 방문을 통하여 과거 한일관계를 되짚어보고 반성과 성찰을 통한 올바른 역사문화 인식 제고
 - 일본의 초청을 받아 방일한 조선통신사 남긴 많은 사적을 통해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의를 재인식

② 기대효과

- 개원 20주년 맞이 대내외 위상 강화 및 연구기반의 확대
- 충남 내 역사문화 관련 기관들의 참여로 인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강화 및 상생방안 모색
- 일본 가라츠·마쓰로 무령왕네트워크 등 고대한일관계와 관련된 단체와 역사문화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마련
- 한일관계 유적 및 조선통신사 관련 상세한 유적 자료 수집 및 확보